

“예술인 복지정책 실효성 제고 재정확대 필요”

도의회 문건위, 복지자금 설치 공청회 개최 “규모·용도에 추가 고민 담겨야” 공감대

17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주관한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자금 설치 공청회가 지역예술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예술인 복지자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혜원 연구위원이 예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고, 안혜석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안혜원 연구위원은 “예술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예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인 재정 확보는 진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문화된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를 실행에 옮기고, 예술인 공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취약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박규현 창작극회 대표는 “일방적인 시혜적 성격의 예술인 복지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술인 복지금고의 용도를 비롯해서 예술인 복지정책을 입안하는 일련의 과정에 지역 예술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복연구원의 장세길 연구위원은 예술인 복지자금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중앙에서 시행하는 예술인복지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는 동시에 예술인 복지사업의 빈틈을 찾아서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술인 복지자금 용도를 명시한 개정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역시 토론에 나선 전북예총의 백봉기 사무처장은 예술인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다각화 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 전라북도 문화행정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회에서 자체 숙의과정을 거쳐서 개정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인 후에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전라북도의 재정 여건과 실질적인 예술인 복지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기에 예술인 복지금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100억 규모의 예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복지센터의 자치법규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경수 기자

도의회 농산경위, 정석케미칼 등 찾아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7일 (주)정석케미칼(완주)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익산)을 찾아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전에 방문한 (주)정석케미칼은 1990년 대구에서 창업하였으나 1998년 완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키워온 대표적인 전라북도 향토기업이다

운영 현황을 청취한 나인권 위원장(김제 1)은 (주)정석케미칼은 노면 표

지용 도료시장 분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설한 기업이다”며, “최근에 기업의 성장성을 위해 시작한 에너지 소재 분야의 신사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식품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통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수 기자

특별지방행정기관 협력 강화 합의 | 전북도, 도내 기관들과 행정협의회

전북도와 도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참여한 행정협의회가 지난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번 행정협의회에는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19개 도내 특별지방행정기관장이 참석해 민선 8기 도청 운영방향에 대해 도 기획팀장으로 부터 보고 받은 후 기관별 업무를 공유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전북도와 도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기관간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분기별)하는 등 기관간 공동 소통협력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이번에 참석한 특별지방행정기관장들은 기관별 사업소개와 함께 도청 현안과 기관별 현안에 대해 공동



으로 협력기로 했으며, 행정협의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도와 기관 간 소통창구가 개설돼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데 대해 매우 만족했다.

군산세관 최천식 세관장은 “군산항 특송장 설치를 전북도와 공동추진하면서 고용·운송·선사 및 하역사 일자리와 수익창출로 지역발전

효과를 도모해야 하며, 특송장 설치 이후 군산세관의 검역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산고용노동지청 신동희 지청장은 “현대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인력공급이 필요하고 현재 전주 익산지청 협력으로는 인력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내년 천여 명의 추경 인력 확보에 전북도와 각 특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전북지방조달청 이주현 청장은 “전북도 회계과로 한정된 계약협의 창구를 도내 벤처기업과 상용화되기 이전 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지원하고 있는 혁신조달장터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중소기업이 수혜자인 만큼 기업유치지원실내 협

의 창구를 추가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대해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관련부서 검토 후 개선 조치토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전북지방환경청 정윤숙 기획과장은 “회용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11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우선 1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권고해 나가는 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동참해 줄 것”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각 부처별로 도내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북도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지역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도록 전라북도 주요 정책 현장 탐방 대표관방 소개 등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위해 설득 나서 김관영 도지사는 17일 국회를 방문해 법안 심사 관련 상임위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위원인 이만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를 만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위한 설득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장수군의회 정례회 개최

행감·예산안 심사 돌입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등을 진행한다.

첫날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및 어린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 휴회에 들어갔다.

바로 이어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섭)에서는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9일간 전 부서와 읍·면·장수한우지방공사를 대상으로 2022년도 군청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날 28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자)를 통해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장정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군정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제10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전북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주)봉돌건설 김학문 대표에게 전북도시군의정협의회장을 대신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장수=고관호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도·문화관광재단, 관광산업 혁신 적극 대응... 내달 중 개소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가 구축된다.

전라북도(이하 도)와 (재)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현장밀착형 산업인 관광이 지역특성에 맞는 자생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운영을 통해 관광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도내 관광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혁신에 적극 대응을 내달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와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관광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2022년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3월 전북을 포함한 광주, 울산, 경북 등 지역센터 4곳이 새롭게 선정되었고, 광역자치체당 202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9년도부터 추진해 온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수요를 지역으로 유도하여 지

역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현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건물 1층 2층)에 조성 중이며, 12월 중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1층에는 방문자센터, 다목적 라운지, 입자리 상담 부스 등을 설치해 관광기업뿐만 아니라 관광객 및 일반 시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위케이션 공간)도 마련한다. 2층에는 입주기업을 위한 전용 사무공간 및 교류 공간 등을 조성하여 관광벤처의 성장을 지원한다. 향후 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도내 20여 개의 예비창업 및 관광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